



고대구로병원뉴스

NO. 118
December 2016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12월 21일 월간

선천성하지기형 라오스 환자 3명 무료 수술 지원



수술 및 치료비용 전액 지원해 새 삶 선물 원활한 재활 위해 현지의료진 수소문 등 진정한 인술 실천

고대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이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간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는 또는 불편하게 걸을 수 밖에 없었던 라오스 환자 3명에게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비용을 지원해 새 삶을 선물했다.

한국에 방문할 당시 이들 3명 환아는 근육이 경직되고 발이 휘거나 양 다리의 길이가 차이나는 등 선천성하지기형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빠캄(Pakham Hanhha, 9세, 여아)은 양쪽다리 관절이 무릎부터 발까지 전체적으로 구축되고 발이 안쪽으로 휘는 내반족을 갖고 있었다.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가락 관절도 굽어있어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 본 적이 없었으며 부모나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삶을 살아왔다.

계손(Kasone Onnalath, 12세, 여아)은 양쪽 다리 길이가 2cm정도 차이가 있어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고, 뇌성마비로 인한 내반족 때문에 30분 이상 걷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싸이폰

(Saiphone Meksavanh, 13세, 여아)은 발이 바깥쪽으로 휘는 편평발이어서 역시 절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위해 난생처음 이국땅을 밟은 세 명의 환아는 11월 11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 약 3주간 머물며 소아정형(왜소증 및 사지기형) 분야에서 국내 대가로 손꼽히는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송해룡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계손은 수술을 통해 발 근육의 구축을 풀어주고 인대위치를 옮겨서 일반인처럼 모양을 바로잡아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싸이폰은 발 뼈를 절제하고 일리자르프 링으로 모양을 교정해 역시 일반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됐다. 계손과 싸이폰은 3주간의 치료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해 건강한 모습으로 12월 1일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유일하게 양쪽 다리 모두 수술이 필요했던 빠캄은 두 차례 수술을 통해 발 뼈를 절제해 모양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무릎의 관절 구축을 풀어주기 위한 수술과 함께 일리자르프 링을 통한 점진적 교정 과정을 한창 진행 중이다. 걸을 수 있도록 되기까지 최소 2달이 소

요되는 빠캄을 위해 구로병원은 앞으로 2달 정도 더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비자문제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빠캄을 위해 라오스 현지에서 케어 가능한 의료진을 수소문 중에 있다.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라오스로 떠나기 전에 계손은 "나도 이제 친구들처럼 걷고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여요"라며 웃었다. 함께 한국을 찾은 어머니도 "아이가 또래처럼 걸을 수 있었으면 하고 항상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무료로 수술을 해준 고대 구로병원에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에서의 장기간의 치료를 앞두고 있는 빠캄은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빨리 적응하고 회복되어 당당하게 걸어서 라오스에 있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한국 의료진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빠캄의 경우 아주 희귀한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 없이는 평생 걸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술 받은 아이들이 고국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생활에 잘 적응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빠캄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선천성하지기형 라오스 환아 3명 무료 수술 지원

3명의 환아들을 위해 병실을 깜짝 방문한 은백린 병원장은 "대학병원의 소명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 동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걸어 나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라오스 환아 치료지원에는 CJ 나눔재단에서도 도움을 손길을 보내와 훈훈함을 더했다. CJ 나눔재단에서는 이들 환아만을 위한 모금방송을 마련해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 고대 구로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오! 쇼핑의 기적 - 연말모금 특별 미니 콘서트'가 진

행되기도 했다. 콘서트에는 가수 박보람, CJ 오쇼핑 쇼호스트 아카펠라팀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날 녹화된 방송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토) 오후 6시 40분에 CJ 오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모금액은 라오스 환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료 수술은 라오스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일으켜 라오스 국영방송인 LNTV에서도 한국을 찾아 환아들의 수술을 비롯한 치료 과정을 상세히 촬영했으며, 이들의 성공적인 치료경과와 한국의 우수한 의료가 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고대 구로병원, 기상재난훈련 실시



재난의료대응팀 가동 훈련으로 재난 대비·대응 태세 강화 헬기, 굴절차, 소방차 등 동원해 실전 방불케


고대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이 11월 25일 오후 2시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상재난훈련을 구로소방서, 구로보건소, 구로구청, 영등포소방서, 육군 7688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원내 유관부서는 물론, 지역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병원 내 폭발 및 화재 발생을 가상해 이뤄졌으며, 구로병원 행정동 옥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앞 주차장에서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특히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의 지원으로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헬기이송상황까지 재연해 현장감을 더했다.

이번 훈련에는 헬기, 소방차, 굴절차, 구급차 등이 동원됐으며, 소방대원 및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로병원 재난대책위원회,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원내 주요부서 교직원들을 포함해 총 130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구로병원 교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원내 화재진압팀의 초기진화, 화재신고, 재난의료대응팀 가동, 비상진료 구역 설치 및 운영, 환자 응급처치 등의 과정에 일사분란하게 참여해 재난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은백린 원장은 "오늘과 같은 훈련이 원내 교직원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여러 외부 기관에서 훈련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다. 앞으로도 구로병원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 및 치료를 담당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소방서 장현태 서장은 훈련 후 총평에서 "오늘처럼 추운날씨에 각종 재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훈련에 충실히 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긴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오늘 훈련이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관내 어려운 이웃 위한 건강계단 기부금 1,000만원 전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은백린)은 12월 8일 오후 2시 구로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적립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전달식은 은백린 병원장과 최성 구로구청장, 이형춘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구로구 지역주민들의 건강계단 이용으로 적립된 기부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계단은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2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대 구로병원과 구로구, 구로희

망복지재단의 업무협약으로 건강계단을 조성해 구로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유도과 지역 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구로구청 청사 내에 설치됐다.

구로병원으로부터 전달된 기부금 1,000만원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구로구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2014년 10월 구로구, 구로희망복지재단과 함께 매년 구로구민들의 건강계단 이용으로 적립된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신체사업 활동 등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케아 소프트토이로 웃음꽃 활짝"

이케아 광명점, 구로병원 환아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고대 구로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한 환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이케아 광명점(점장 미셸 아쿠나) 직원들이 고대 구로병원 소아병동(53병동)을 찾아 입원한 아이들에게 인형과 동화책을 나누어주며 따뜻한 크

리스마스 인사를 전했다.

선물을 받은 한 환아 어머니는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게 되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시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며,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준 고대 구로병원과 이케아 광명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장 산타의 교직원 어린이집 깜짝 방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원장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22일 교직원 자녀 보육시설인 구로병원 어린이집을 깜짝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산타 할아버지가 한명 한명의 아이들에게 다가올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으며, 아이들은 즐거운 환호성과 인사로 화답했다.



환자 중심의 병원 부서를 만나다.

(약제팀 편)

▲ 약제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약제팀은 정확한 약물 조제와 안전한 투약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들의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및 복약상담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품정보실에서는 원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도입 검토 및 약물사용 평가,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약품식별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임상시험약국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조제, 투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물혈중농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환자별 적합한 약의 용량과 투여 간격을 자문하는 임상약동학(TDM)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양 상태 평가를 통해 영양불량환자로 판정된 환자들을 위한 고영양수액요법(TPN)자문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항암치료팀, 영양집중지원팀, 중환자 다학제팀, 완화의료팀 등 다학제팀의 팀원으로 활동하면서 약물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임상약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제시스템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

약제팀에서는 경구, 외용약의 조제 업무 외에도 항암제, 고영양수

액제(TPN)등의 주사약 조제 업무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서발표회를 개최해 각파트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업무 표준화는 물론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다학제적 팀활동 참여

약제팀 임상전문약사들은 항암치료팀, 영양집중지원팀, 중환자 다학제팀,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서 의료진과 더불어 팀의료에 참여해 환자들의 약물 요법을 검토하고 중재하며 정기적인 팀활동으로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문약사에 의한 임상약제서비스

구로병원 약제팀에는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인증 전문약사 16명과 미국약사회 인증 전문약사(BPS) 1명, 임상연구약사 자격인정(QCRP) 5명의 약사가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시험약 관리약사들은 모두 임상연구약사 자격 인정을 획득하여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문약사들은 종양약료, 영양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심혈관질환약료, 장기이식약료, 중환자약료, 감염약료, 의약품정보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학제적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약동학(TDM), TPN모니터링,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복약 안내문 개발과 흡입기, 외파린, 진통제, 장기이식 등 특수 복약상담도 실시합니다.

▲ 원외약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 인근 원외약국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1월 4일에 병원장님, 부원장님 주재 하에 원외약국 11곳의 대표약사 및 구로구약사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구로병원 사용 약품에 대한 공지, 원외처방전 발행관련 변경 사항 등을 논의하여 구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경우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외약국과 지속적으로 약물 사용 관련 변경 사항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연구활동

약제팀에는 약사들의 임상약학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수준 높은 약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학대학생들의 병원약국 실무실습교육을 수행하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약사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제업무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각종 학회와 학술지에 발표하여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제팀은 환자분들에게 양질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제업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임상약제업무를 수행하여 환자들의 약물치료 효과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로봇수술이 무엇인가요?

Q. 로봇수술이란?

외과분야의 시술방법은 피부를 절개하는 '개복수술', 특정 수술장비를 활용하는 '복강경 수술', 로봇(다빈치)을 이용하는 '로봇수술'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로봇수술은 최소절개수술(MIS)로 이루어지며 대형 절개 대신에 보통 수술 포트(operating ports)인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빈치 수술 시스템은 단 1-2cm의 절개만으로 외과의사가 기존의 개복 수술과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능숙하게 수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빈치 수술 시스템은 수술 의사가 사용하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서전 콘솔, 네 개의 인터랙티브 로봇 팔을 장착한 환자용 카트, 고성능 비전 시스템 및 특허를 받은 수술 기구로 구성됩니다. 의사는 다빈치 서전 콘솔에 편하게 앉아서 인체 내부를 크게 확대한 3D 영상을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진행할 때는 마치 핀셋과 같은 작용을 하는 주 조정장치(master controls)를 이용합니다.

의사가 콘솔을 조작하면 다빈치는 의사의 동작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의사의 손과 손목 그리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환자용 카트에 있는 소형 장비의 동작으로 변환해줍니다.

다빈치의 환자용 카트에는 최대 세 개의 수술 기구와 한 대의 3D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위해 의사는 정밀 조정되는 수술 기구를 일련의 동전 만한 크기의 절개 부위를 통해 환자 몸 속으로 넣습니다.

의사는 전문적 수술 작업을 자신이 직접 주도하면서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어떤 나라에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 곳에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및 터키 등의 대형 메디컬 센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Q. 로봇수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작은 구멍만 뚫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퇴원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3D 영상 지원과 최대 10배의 확대 기능을 활용해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며 이는 특히 림프절 절제와 같은 미세한 조직의 정밀한 수술시 유용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세조정능력)

의사의 미세한 손 떨림을 방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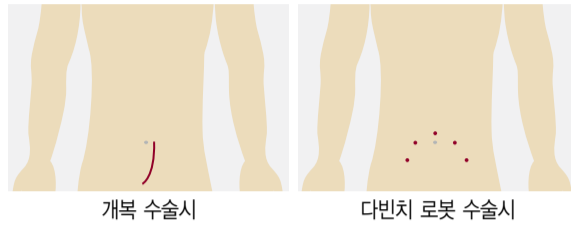
개복 수술법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아 흉터가 적으므로 미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손목 기능이 있는 로봇 팔은 상하좌우와 회전도 가능해 사람 손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곳까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대장암 절개부위 비교



전립선암 수술부위 비교



부인과 수술부위 비교



Q. 로봇수술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로봇 수술에 준비해야하는 시간이 숙련 정도에 차이가 나지만 길기 때문에 긴급하게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로봇을 조작하기만 할 수 있고 장기를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장기나 종양의 종류를 정교하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는지 알 수 없어 힘 조절을 위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Q. 수술 가능 분야는 어디인가요?

정교함과 세밀함이 특별히 요구되는 수술에 로봇수술 시스템의 이용가치가 큼니다. 대표적 수술로는 전립선암에 대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을 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의사의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좁은 골반강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통 호두알에서부터 자두 정도의 작은 크기여서 기본적으로 수술이 어려워 암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연관 조직의 부분적 손상에 따른 수술 중 다량의 출혈, 수술 후 요실금, 성기능장애의 발생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로봇 수술은 배에 가스를 넣어 기복을 형성,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이므로 가스의 압력만으로도 지혈효과가 있어 전립선절제술 시 개복수술에 비해 출혈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고 확대시 3차원 영상과 로봇 팔의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 전립선 표면의 신경과 혈관을 잘 구분해 전립선을 벗길 때 이들을 잘 보존할 수 있고 요도의 길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로봇수술 시스템의 영역이 점차 확대돼 복강 내의 대장암과 위암 수술과 갑상선 수술에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비뇨기과의 부분 신절제술, 신우 및 요

관 재건술, 방광절제술, 부인과의 자궁 적출술, 자궁근종수술, 종격동종양, 식도암수술 등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다빈치 수술 시스템은 FDA의 승인을 받았나요?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광범위한 종류의 수술과 관련하여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승인했습니다. FDA 승인을 클릭하시면 어떤 분야에서 승인을 받았고, 대표적인 적용 분야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다빈치 수술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향후 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도입되면 외과의사가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나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정확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복잡한 최소절개수술을 진행하는 외과의사를 지원할 뿐입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따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에 관해 시스템 자체적으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의사가 동작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수술적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Q. 그럼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이용하는 외과의사는 "가상 현실"속에서 수술하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콘솔에 앉아 있지만,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손목에 부착하는 소형 장비를 이용해 작은 절개부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술부위의 실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결코 가상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직접적인 실시간 통제를 벗어나 시스템의 자체적 조작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거나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Q. 로봇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구로병원에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에서 전립선암, 자궁근종, 골반탈출증, 자궁암, 대장암, 직장암, 갑상선암, 종격동종양, 식도암등의 질환에 적용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본인의 질환이 로봇수술 적용이 필요한 수술인지에 대한 의료진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되므로 해당과 교수님 진료가 필요합니다.



글, 원내기자 이해림 간호부

문의전화 | 비뇨기과 : 02,2626,1310 / 산부인과 : 02,2626,1200
외과 : 02,2626,1140 / 흉부외과 : 02,2626,1180

생생건강

우리 아이가 혹시 부정교합?



부정교합은 남들과 다른 외모적인 부분과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음식을 씹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 소화불량을 초래하거나 불규칙한 치열로 인해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구강 위생관리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잇몸병이나 충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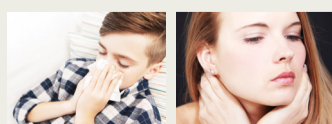
교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경적인 영향 또한 작용할 수 있는데 유년기에 혀를 내밀거나 손을 빠는 잘못된 습관으로 치아의 위치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구순구개열이나 외상에 의해 턱뼈가 손상되어 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도움말 : 치과 이동렬 교수)

« 우리 아이 부정교합 조기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치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윗니와 아랫니가 반대로 물리거나 아래 앞니가 입천장에 닿는다.
-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 중 주걱턱이나 무턱인 사람이 있다.
-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 또는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
- 턱을 과거나 한쪽으로만 팔베개를 하고 자는 습관이 있다.
- 낙상 등 외상으로 인해 턱뼈에 손상을 받은 적이 있다.



방심은 금물, 겨울철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법



스키장은 다양한 골절 부상이 잦은 곳으로 골절뿐만 아니라 열상, 뇌진탕 등이 잘생기며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외상 환자도 발생한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본인에게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야 하며, 넘어지거나 부딪힌 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중증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조깅이나 자전거를 탈 때 생각지 않게 빙판길에 미끄러져 타박상, 골절, 뇌출혈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

에, 마찰력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 이용 시에는 헬멧 및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운동 중에는 소량의 물을 자주 섭취하고 카페인 함유된 커피나 녹차와 같은 음료를 탈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시 사고가 발생해 압통이 심하거나 골절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응급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응급처리를 통해 손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응급의학과 조영덕 교수)

재미난 놀이로 손 씻기 배워요



고대 구로병원 남촌드림클래스 병원학교(교장 송대진)는 11월 30일 5층 어린이 도서관에서 손 씻기 교육 '수리수리 장난감 나와라'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건강기업 (주)우리아이들(대표 김희숙)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각종 감염병 질환과 식중독 등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환아들의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은 환아들이 직접 상자에서 고른 장난감으로 비누를 만들고 세균 스탬프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 등을 통해 환아들이 흥미를 갖고 직접 참여하는 손 씻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병원학교는 질병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간 질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되는 학구난치성질환 및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자 2008년에 설립됐다.

2016년 자원봉사자 송년회



고대 구로병원은 12월 8일 의생명연구소 1층 대강당에서 '2016년 자원봉사자 송년회'를 가졌다.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2016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고와 감사담이 이뤄졌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성인예방접종교양강좌' 등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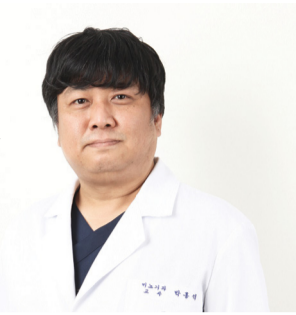
또한 2016년도 우수봉사자 시상식에서 수상자 2명에게 상장과 꽃다발이 전달됐다. 이어진 정년을 맞이한 5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 꽃다발과 함께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

은백린 병원장은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헌신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구로병원의 가족과 같은 여러분의 미소와 손짓 하나하나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2016년 총 278명의 고대 구로병원 자원봉사자들은 원내 20여 곳의 부서에서 외래 안내, 번호표 발행, 병원학교, 중앙공급실 등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 연제상 수상

적정진료관리부장 박홍석 교수



고대 구로병원은 11월 24일(목)~25일(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 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표된 총 212건의 초록 중 구로병원은 '병원 내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시스템, 환경, 사람, 시설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살 예방 개선활동을 간호부, 진료부, 총무팀, 적정진료관리팀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개선활동을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구연발표 부문에서는 ▲수술실 사후처방 오류 감소활동(수술실 김선영 간호사), ▲병원 내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적정진료관리부 박홍석 부장), 포스터 전시 부문에서는 ▲드레싱 준비물품에 대한 표준지침 개발(62병동 서일자 수간호사), ▲혈액가스분석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절감활동(신생아중환자실 박정은 간호사)주제로 각각 발표와 전시가 이뤄졌다.

박홍석 적정진료관리부장은 "이번 학술활동을 계기로 구로병원 교직원들이 환자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개발 중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자살예방 도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겸 교수, 자랑스러운 高大 체육인상 수상



고대 구로병원 병리과 김한겸 교수는 12월 9일 오후 7시 임패리얼 팰리스 7층 두베홀에서 고대 고우체육회(회장 오규상)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고대 고우인의 날 '2016 자랑스러운 고대 체육인상'에 선정되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김한겸 교수는 의대 최초 검도회 설립과 한국의 사검도회 설립 및 초대회장 역임, 전국의대생검도대회 창설뿐만 아니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계의 검도활성화와 우리나라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우체육인상을 수상했다.

김한겸 교수는 수상소감에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42년 동안 예의, 신의,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와 인연을 맺은 결실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사검도회의 발전과 더불어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구로병원-인하대병원 의료기기와 재생의학 치료기술 개발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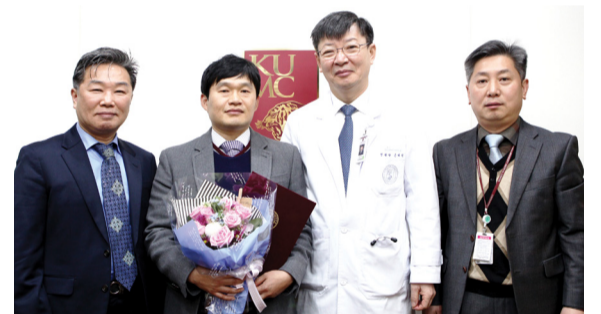
고대 구로병원은 12월 6일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인하대학교병원과 국산 의료기기 및 재생의학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중개/비임상·임상연구에 대한 협력공동 연구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동 연구, 교육훈련 및 학술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은백린 병원장은 "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로 체외진단용기기 분야에서 특화된 인프라 및 연구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중점 연구분야인 의료기기와 재생의학 분야에서 양 기관이 활발하고 친취적인 연구교류가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승 연구부원장은 "산학연병의 각 분야에서의 기술 융합뿐만 아니라 협력기관들과의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환자들에게 유용한 의료기기 개발 및 재생의학 치료기술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팀 구양현 주임기사, 구로구청장 표창



고대 구로병원 시설팀 구양현 주임기사는 12월 9일 오후 3시 구로구청 강당에서 구로구가 주최한 '2016년 환경 분야 종합평가 보고회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서 구로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환경단체 회원 및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구양현 주임기사는 '2016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살림도시 구로 만들기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활동, 물사랑봉사단활동, 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질·대기질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 7개 분야에서 유공자 45명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구양현 주임기사는 지난 5년 동안 구로병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LED 조명 교체를 자체공사로 진행하여 공사비 절감과 전등 S/W 절전 스티커 제작 및 적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은백린 병원장은 "어려운 의료계 환경에서도 구로병원에 애착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 그 결실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대식



호스피스회, 신규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고대 구로병원 호스피스회(회장 최윤선)는 12월 14일 암병원 10층 회의실에서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신규 자원봉사자 발대식(23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팀원 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윤선 호스피스회장과 김준석 호스피스명예회장, 이용규 간호부장 등을 비롯한 보직자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서 3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4명의 발대식과 500시간 및 1000시간 장기근속 봉사자 5명에게 각각 상장과 선물이 전달됐으며, 2016년 한 해에 있었던 활동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윤선 호스피스회장은 "항상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호스피스회와 환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환자들의 미소라는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격려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침이면 눈 비비고 일어나 매일처럼 똑같은 일상.

“아! 하루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시간은 항상 나보다 앞서 저만치 가버리고
애써 여유 있는 척 해보려 하지만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병원이 가까워지면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옛말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는 말처럼 많은 시간들을 병원 현관을
드나들며 보냈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일까?

요즘 출근할 때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 방으로 걸어 들어갈 때와, 방에서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느낌, 뭐지? 이 느낌은?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하게만 느껴왔던 이 느낌에 잠시 집중을 해본다. 분명 같은 공간을 걸어갈 때 나의 두 모습은 달랐다. 가운을 입기 전과 입고 난 후, 걸음걸이도 표정도 마음가짐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하라고 강요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사명감! 마치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거창한 단어. 그러나 누구든 가운을 벗고 퇴근하며 병원을 나갈 때의 해방감이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운을 입는 순간 사명감도 우리 안에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 본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 그 일의 가치는 사명감의 유무에 달려있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일해오고 있었다. 멋진 퍼즐의 한 조각이 아닌 우리 개개인 자체의 가치로서 독립적인 작품이며 우리 병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심장인 것을 깨닫는다.

간혹 어떤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사명감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가기도 한다.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만 그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도 상처를 받게 되어 후회를 하게 된다. 다른 병원의 경우 실례로 가끔 퇴직하신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셨을 때 재직하던 당시의 그 위세는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고 초라하게 외면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고 한다.

어차피 단 한 번의 인생. 욕심을 따르던 사명감을 따르던 결국에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서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살리는 심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살리게 된다는 당연한 인생의 원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욕심이 아닌 사명감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구로병원의 가족들에게 힘내고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고 싶다. 내가 힘들어질 때 결코 나 혼자만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심장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

핵심친절리더 팀장 영상의학과 최인호

구로병원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옛 것을 소개하는 코너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병원



고대 구로병원은 1983년 개원 이후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병원 내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대응훈련과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초창기에는 직장 민방위대원들과 함께 환자와 병원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원내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구로보건소, 구로구청, 구로구 및 영등포 소방서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의 합동훈련으로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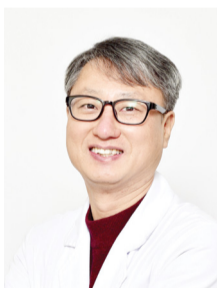
나이가 응급수술을 위해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헬기이송까지 재현하는 대규모 훈련에도 참여해 서울 서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그 영역과 규모를 보다 넓혀가고 있다.

고대 구로병원은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



구로병원 교직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ghhong@kumc.or.kr

칭찬열차



103호 칭찬열차 주인공

종양혈액내과 교수 서재홍

연구관리팀 손예영님이 종양혈액내과 서재홍님을 추천합니다. 서재홍 교수님은 병원 내에서도 모든 직원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시면서 환자분들께도 언제나 다정하게 진료하십니다. 또한 구로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운영 및 연구 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많은 일들에 앞장서서 계십니다.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때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조언과 지침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기에 칭찬주인공에 추천합니다. 🍀



103호 칭찬열차 주인공

소아청소년과 책임간호조무사 김순희

기획실 정태민님이 소아청소년과 김순희님을 추천합니다. 김순희 선생님은 늘 바쁜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환자분들과 내원객들을 응대하십니다. 더구나 내부 직원들에게도 늘 친절함을 잃지 않고 매 순간순간 상냥함을 갖고 계신 정다운 분이시기에 이번 칭찬주인공으로 추천합니다. 🍀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12 December 2016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7일 금연
 · 14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21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8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1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8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15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2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2
			당뇨교육 오후 2시	
5	6	7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8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9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12	13	14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15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16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19	20	21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22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23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26	27	28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29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30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01 January 2017

수요웰빙강좌 02.2626.1540
 · 4일 금연
 · 11일 비만과 대사증후군
 · 18일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 25일 림프부종 및 암환자 건강관리

당뇨교육 02.2626.1091
 · 5일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 12일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 19일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 26일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2	3	4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5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6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9	10	11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12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13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16	17	18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19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당뇨교육 오후 2시	20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23	24	25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26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나실	27
		수요웰빙강좌 오후 2시	당뇨교육 오후 2시	
30	31			

쉽고 편한 병원이용 TIP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

충전 장소

- 본관 1층 수납창구 옆
- 신관 1층 로비 멀티비전 건너편
- 2층 보호자 대기실
- 3층 암병원 처방전 발행기 옆

운영 시간

- 24시간

충전가능 휴대폰

- 삼성, LG, 팬택 SK, 애플

사용법

- 충전할 때
 - ① 충전함 번호를 눌러주세요.
 - ② 찾으실 때 사용하실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 ③ 휴대폰 또는 배터리 중 하나만 케이블에 연결해주세요.
 - ④ 문을 닫아주시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음성을 확인해 주세요.
- 찾으실 때
 - ① 충전함 번호를 눌러주세요.
 - ② 충전시 입력한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 ③ 문을 닫아주세요.



